



국산기술로

## 외국 디지털인쇄 서비스에 도전한다

외국 브랜드인 키크스로 대표되는 24시간 디지털 인쇄, 제책 토털 서비스에 국산기술로 무장한 씨티피아(ctpia, 대표 최정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씨티피아가 최근 국산 CTP 제조업체인 아이디글로벌, 워크플로를 포함한 인쇄업체 전용 ERP 공급업체인 소프트뷰, 국내 최대 경인쇄 업체의 하나인 월드프린트, 오프셋 인쇄 및 제책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프린터와 손을 잡고 총무로 거점을 마련, 서비스에 들어간 것이다.

씨티피아/월드프린트 사무실, CTP실/전시룸, 디지털 인쇄실 등으로 조성된 씨티피아는 새로운 조직이 합류되고 관련 장비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디지털 프린트 솔루션의 메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현재 씨티피아의 CTP실/전시룸에는 아이디글로벌의 수동 CTP 2대와 자동 CTP 2대, 실사출력용 플로터 2대가 비치되어 판출력 서비스와 실사출력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아이디글로벌 판매조직이 씨티피아 사무실로 합류할 경우에는 작업실이자 전시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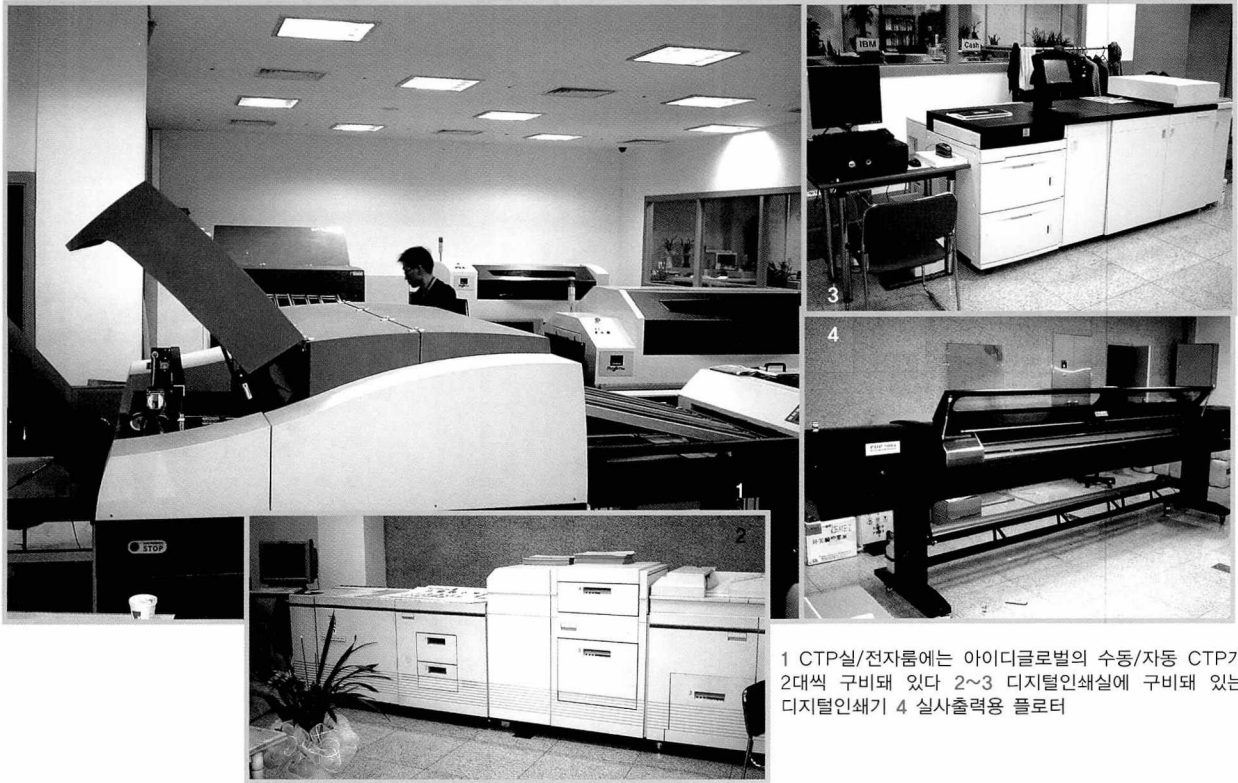
디지털 인쇄실에는 디지털 경인쇄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약이 완료된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를 빠른 시일에 설치, 디지털 인쇄 서비스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타지역에 있지만 협력관계에 있는 월드피아와 인터프린터가 보유한 경인쇄기와 오프셋 인쇄기를 통해 일반 인쇄 작업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외 운전업체 6개사, 매엽오프셋 업체 및 제책 및 후가공 업체 70여개사와 외주가공 계약을 맺고 인쇄 관련 토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ERP솔루션으로 교정 문제 해결, 전국 네트워크화

24시간 서비스로 소량의 디지털 인쇄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키크스의 장점이라면 씨티피아는 키크스가 처리하지 못했던 경인쇄 및 오프셋 물량과 같은 기존 인쇄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인쇄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에 강점이 있다.

또한 키크스가 일반 업체들에 비해 빠른 작업 속도를 앞세워 다소 비용을 높게 책정했던 것에 비해, 씨티피아는 자체 보유 기술과 많은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



1 CTP실/전자룸에는 아이디글로벌의 수동/자동 CTP가 2대씩 구비돼 있다 2~3 디지털인쇄실에 구비돼 있는 디지털인쇄기 4 실사출력용 플러터

를 통해 작업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씨티피아의 협업시스템이 국산 CTP 제조업체인 아이디글로벌과 ERP 솔루션 공급업체인 소프트뷰를 통해 완성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인쇄산업을 외국기술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경중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쇄서비스 솔루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산 솔루션을 채택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뷰가 개발한 인쇄 전용 ERP 시스템은 견적 및 사무 관리는 물론, 웹상에서 자동 터잡기, 원격 교정에 이르기까지 인쇄관련 전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솔루션이다.

씨티피아는 소프트뷰가 개발한 ERP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CTP가 고품질, 시간절약, 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면서도 빠르게 보급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인 교정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시스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부산, 인천, 대전 등 지방 거점 도시에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 씨티피아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 오프셋 물량 등 모든 데이터 인쇄작업 처리

이러한 협업시스템은 2006년초 최정의 씨티피아 사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여기에 인쇄산업 토탈 서비스 구축을 꿈꾸던 아이디글로벌이 자동 CTP를 생산하고, 아이디글로벌의 자회사인 소프트뷰가 관련 ERP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국 네트워크화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됐다.

씨티피아 최 사장은 “킨코스는 한정된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어 기존 인쇄 시스템은 물론, 다양한 인쇄작업에 대한 대응이 어렵지만 씨티피아는 CTP 판출력, 실사출력, 디지털 인쇄 서비스는 물론이고 인쇄관련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경인쇄 및 오프셋 작업과 관련한 모든 인쇄서비스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서비스업체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많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초부터는 명절과 휴가철을 포함한 365일 24시간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